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17일(월) 제 3036호



2036 전주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 13일 서울 여의도 전북중앙협력본부에서 열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김관영 도지사 이회택 한국OB축구회 회장과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전북도>

전북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가결

12년간 세출예산·복지 혜택 유지...재정 불이익 방지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설치...통합 후 안정성 확보
통합 조례안 의미와 전망...전주-완주 통합, 첫 사례될까

전북자치도의회가 지난 13일 가결한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에는 통합 대상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가 큰 도시에 무조건 흡수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의회가 추진하는 시·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자체 흡수 통합이 아닌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 방안을 조례를 통해 그 기반을 만든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 배분과 행정 운영의 틀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완주군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합 시·군의 재정 운영과 주민 지원 대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통합 이후 기존 시·군의 재정 구조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은 12년간 유지하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승의를 거칠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복지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복지·농업·농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 역시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시·군 간 지원 수준이

다를 경우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해 통합 이후에도 기존 주민들이 받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한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통합 이후 예산 유지와 주민 지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직접 개입 사항을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대 11명으로 구성되며 도의회 추천 인사와 지방자치 및 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조례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향후 통합 시·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보면 행정통합 후 10년이면 화학적 단계의 지역 결합이 이뤄진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첫 적용 사례가 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군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지 기자

이회택 회장·현정화 감독, 전주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

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추가 위촉
前 국가대표 체육인 이회택 회장·현정화 감독
재능기부 형태로 홍보 캠페인·공식 행사 참여 등 활동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결정을 앞두고 전 국가대표 체육인을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하는 등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전북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전 국가대표 체육인 이회택 한국 OB축구회 회장과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에 대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이회택 회장은 국내 축구의 전설로, 1966년 대한석탄공사 축구단에 입단한 이후 해병대·한양대학교·포항제철 등을 거쳐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 전남 드래곤즈 감독,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정과 감독은 1988년 하계올

림픽 및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와 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메달리스트로, 2009년 대한민국 탁구 국가 감독팀에 선정돼 2010년 아시안게임까지 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현재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으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두 명의 홍보대사는 기존에 위촉된 홍보대사 7명(FIFA 김유정 심판, 김동문·박성현·유인탁·임미경·정소영 전 국가대표 선수, 김태연 전북 출신 트로트가수)와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전북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 공식 행사 참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 지원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정과 감독은 "저의 경험과 열

정이 2063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회택 회장도 "K-컬처 분향인 전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도사는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는 2월 28일까지 두 분을 포함한 홍보대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반드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유치도전을 선언 후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하계올림픽유치 TF'를 출범했다. 전담팀을 붙임 조성을 위해 올림픽 현장평가 자료회의 구성·운영, 유치기원 챌린지, 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 각종 이벤트 등 전방위적인 운운프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도, 자연휴양림 4개 신규 조성...도민 '힐링 라이프' UP!

109억 원 투자...차별화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4개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맞춤형 산림복지 공간 확대
7개 자연휴양림 보완해 시설 개선 및 편의성 강화
168% 증가한 방문객 수, 자연휴양림 인기 지속 상승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4개 자연휴양림을 신규 조성하고, 7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09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자연휴양림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차별화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65억 원을 투

자해 7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전북 자연휴양림 방문객 수는 2020년 23만 9천명에서 2024년 64만명으로 168% 증가했다.

이는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체험 프로그램 도입, 접근성 향상(주차·안내 시스템 개선, 홍보 강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4년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24.1% 증가한 64만 명으로, 산림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연휴양림을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문화·교육·치유 기능을 갖춘 복합 산림복지 공간으로 발전시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의 자연휴양림은 도민과 관광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휴양림 예약은 산림청 운영 '숲나들'(www.foresttrip.go.kr)에서 가능하며, 전국 자연휴양림, 숲길,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정보도 제공된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협력전시 PAPER + JAM

낮익은 도시
낮선 이야기

2025. 01. 21.(화) - 4. 13.(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5579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함파우길 65-14
063-620-5660

관람시간 10:00~18:00
전시해설 매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입장료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월요일이 공휴일인 그 다음 평일이 휴관

전북도립미술관
Jeonbuk Museum of Art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Namyangju Kim Byung-jung Art Museum

도의회 기행위, 특별자치교육국 등 업무보고 청취

이수진 도의원,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내 특례 실행·발굴 과 나뉘어 있어”…조직개편 필요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14일 제41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등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 5)=농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경비를 지원해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묻고, 지역민들이 상대적 차별 또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양질의 교육 기회제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실제 지역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하며, 목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



강태창 도의원

총괄을 맡고 있는 만큼 새로운 특례가 꾸준히 발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도내 대



정종복 도의원



염영선 도의원



이수진 도의원



한정수 도의원

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특별자치교육협력국 총괄지원과가 전북특별법의

학에서 2년 연속 글로벌 대학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는데 올해 역시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이 최종 선정돼 지역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소통해 주길 주문했

다.

▲염영선(정읍2) 의원=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관련 수도권 강사는 사후관리가 안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실력있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요구했다.

▲이수진(비례) 의원=특별자치교육협력국 내 특례를 발굴하는 총괄지원과와 특례를 실행하는 자치제도와가 나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업무의 유기적인협력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수(익산4)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 5대 핵심산업(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중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북만의 특화된 분야가 없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있는 과제를 발굴해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 기자



도민과 외국인,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 기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세미나’ 개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김대식, 이하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정강선, 이하전북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외국인·주민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세미나’가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하게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 퍼포먼스로 막을 올렸다.

특히, 도민뿐만 아니라 도내 외국인도 한마음이 돼 염원하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어,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날 올림픽 유치와 세미나에 참석한 1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은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퍼포먼스에 동참하게 돼 뿌

듯하다”며, “전북이 국제적인 스포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스포츠를 통한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와 도내 스포츠 행정가 및 언론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스포츠가 국적과 문화를 초월해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지역 스포츠 행사에서의 외국인 참여 기회 증대 ▲전북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 및 정책 확대 ▲다문화 스포츠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내·외국인이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촉매제로 스포츠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윤수봉 도의원,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수소 경제 견인” 주장

김지민 수소전략팀장, “경쟁국들 동향 파악 및 유치경쟁 가능성 대비해 선제적 분석자료 마련해야”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전북 수소경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문승우 의장의 환영사와 최병관 행정부지사의 축사에 이어 윤수봉 위원장의 취지설명, 발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필요성과 역할,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 수소경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수소경제 활성화로 에너지교역패러다임이 변화하

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필요성과 역할, 범·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의 관련 인프라 강화,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북 ‘국제비즈니스 특구’ 지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중희 전북대학교 석좌교수는 “전북의 미래산업과 생태계를 고려한 혁신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정석 전문위원은 “수소거래소는 선물거래소로서 금융투자자는 거래의 필요악으로 거래소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지민 수소전략팀장은 “독일,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관련 동향 파악, 유치경쟁 가능성에 대비해 거래소 설립의 타당성, 경쟁력,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전북 수소경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김정현 (사)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수석상임이사는 타시도 사례를 비교하면서 “전북은 도로 및 항만 인프라가

우수해 수소 운송 및 물류 허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관 기자

‘전북청년 직무인턴’ 수료…37개 기관·기업서 실무 경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 14일 ‘2025년 상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참여자 2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십은 지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도내 37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 청년 직무인턴’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상반기 모집에서는 1,226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210명이 선발돼 인턴십을 수료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참여 청년들은 본인 신청한 기관에서 5주간 실무 경

험을 쌓았으며,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컨설팅 등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함께 제공됐다.

인턴십에 참여한 한 청년은 “평소 관심 있던 기관에서 근무하며 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직무교육과 실습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매일유업 상하공장 방문해 품질관리 당부

유유·치즈 등 유가공품 위생 및 안전관리 현황 점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에 위치한 매일유업 상하공장을 방문해 유유·치즈·요구르트 등 유가공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유가공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됐는데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이 현장을 찾아 원료관리부터 최종 생산까지의 모든 공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창 매일유업 상하공장은 엄격한 위생관리와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유가공업체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유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생산시설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더욱 강화된 품질관

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독려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유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가공품은 도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원료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다양한 민생분야에서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해당 불법행위를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제보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센터’ 구축 본격화

전주시, 2029년까지 국비 105억 원 투입…탄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등 기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산업도시인 전주시가 국내에서 생산된 탄소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인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국비 105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해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센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역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탄소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및 인증 제도가 부족

해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탄소제품의 표준·시험·평가·검사·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탄소제품의 표준·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 솔루션 센터는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내 3층 규모(부지면적 478.84㎡, 연면적 1157㎡)로 조성되며, 오는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센터 내에는 탄소제품의 품질 검증을 위한 42종의 시험·평가 및 인증장비가

구축되며, 단체표준 사무국 운영과 공인검사기관 및 단체표준 인증기관 지정을 위해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인 ISO/IEC 17020(검사 분야), ISO/IEC 17065(제품인증 분야)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건축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설계 용역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표준·시험·평가·검사·인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건립되는 만큼, 탄소제품뿐만 아니라 이차전지와 수소, 차세대

모빌리티 등 전북의 핵심 첨단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소재·중간재·부품·응용제품-시험인증’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탄소제품 표준·인증 기반을 구축해 탄소제품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해 탄소기업들의 국내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전주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최우수구조대’ 선정 영예

소방청 주관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 평가서 전국 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전주완산소방서 119구조대가 소방청 주관 전국 119구조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구조대’로 선정된 가운데, 지난 13일 전주완산소방서에서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이 열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오숙 본부장과 박덕규 서장을 비롯한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전국 최우수 구조대’ 칭호는 전국 248개 119구조대 중 상위 3개 대원에게 주어지는 영예로, 전주완산소방서 119구조대는 2024년 소방청 주관 구조대원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 평가에서 최우수 구조대로 선정됐다.

전주완산소방서 119구조대는 ▲항공구조대와 연계한 산악사고 특별구조훈련 ▲철거 예정 건물을 활용한 화재진압·인명구조 훈련 ▲신속·정확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현판판 제작 등을 통해 전 평가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박덕규 완산소방서장은 “대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구조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믿음직한 구조 역량을 갖춘 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농식품바우처 지원’…먹거리돌봄 강화

임산부 및 만18세 이하 아동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농식품구매 이용권 지원

전주시는 올해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오늘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만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지원한

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단,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이달 중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을 통해 최종 공고되며, 국산 과일류와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www.foodvoucher.go.kr), ARS(1551-085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외국인인과 가구주 외의 대리 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농식품산업과(063-281-6778)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섭 전주시 농식품산업과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고, 양질의 농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 추진

취약계층 1만5천270가구에 화재감지기·가스누설경보기 등 안전물품 보급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농산어촌 중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고,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

이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화재 사망자 52명 중 60세 이상이 35명(67%)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거주자가 33명(63%)에 달해 고령층과 농촌 거주자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45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총인구의 42.5%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통계청)되는 등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진되며 소방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

해 도내 15,270가구에 소방시설 및 안전물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물품은 ▲소화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구조손수건 등 총 8종으로, 가구당 약 3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자는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의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우선 선정되며, 노인과 장애인의 거주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물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총 4억3천만 원으로, 도비 30%(1억 2,900만 원), 시군비 70%(3억

100만 원)로 편성됐으며, 14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참여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화재안전물품을 설치하고 화재 예방 교육과 주택 위험요소 제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보살핌 역할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성과분석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도내 화재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국제기구 인턴십 사업’ 파견 청년 2명, 귀국

전주시가 지역 청년들을 글로벌리더십을 갖춘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국제기구에 파견했던 청년들이 인턴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귀국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약 8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태평양자부(이하, UCLG-ASPAC,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Asia and Pacific Region)로 파견됐던 청년인턴 2명이 오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주시는 지역 대학교(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만 30세 이하 청년 2명을 해외로 파견하는 ‘전주시 지역청년 국제기구 인턴십 사업’을 추진해 왔다.

파견된 청년인턴들은 그동안 ▲회원도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데이터 업데이트 프로젝트 ▲자카르타 지역 환경 및 위생보건 조사 및 개선 업무 ▲UCLG 주최 위생포럼 참석 및 주요 이슈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인턴십 참가자들은 전주시와 국제기구 간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며 전주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턴십 종료를 앞두고 두 달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전주시와 국제기구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성과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김수미 국제협력담당관은 “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국제기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파견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지역 청년이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UCLG는 전 세계 지방정부와 도시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구 중 하나로,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정책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UCLG 집행부 간부도시로서 전주미래도시포럼, 인턴십 등의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전주시 우수사례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국제기구 활용 우수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구·동·주거복지센터 직원 대상 실무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1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완산·덕진구청과 35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정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주거급여 지원절차 및 실무 적용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 ▲주택바우처 사업의 대상 및 지원방식 ▲실무사례 분석 및 민원 대응 방법 등 심층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된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신청기간 준수 및 지급 기간 연장 등의 사항이 소개됐다. 또, 변경사항 신고 절차 및 이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방안 등도 교육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이 주거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능력 및 전문성을 높여 주거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새만금 태양광 로비’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선고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연루한 사정을, 실질적 이익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형량 산정을 변동할 사정이 없으면서 검찰과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

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천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게 흘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서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주시 서신도서관, 고전인문교양 강좌 운영

전주시 서신도서관은 오는 3월 1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총 34차에 걸쳐 고전인문교양 강좌를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서신도서관 고전인문교양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전라정신연구원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역에서 길(吉)을 찾다’와 ‘논어! 소인이 군자 되는 법’을 주제로 각각 18회씩의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의는 김학권 원광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와 김윤곤 전라정신연구원 사무총장이 각각 맡는다.

먼저 ‘주역에서 길(吉)을 찾다’ 강연에서는 ▲‘주역’의 건괰(乾卦) ▲‘주역’의 곤괰(坤卦) 등을 다룬다.

또한 ‘논어! 소인이 군자 되는 길’ 강연의 경우 ▲왜 ‘논어’인가? ▲천

명(天命)과 인성(人性) ▲군자: 소인, 야인(野人), 비인(鄙人) 등에 대한 강좌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강좌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에게 동양 고전에 담긴 옛 성현들의 삶의 자세와 지혜를 알려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정신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신도서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고전 인문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역과 논어를 통해 수강생들이 동양 고전을 사색하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시민들이 고전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지역주민의 맞춤형 주거돌봄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사업 인내도 이뤄졌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 글로벌 ‘김 육상 양식’ 위해 상생 도모

지자체-폴무원-지역어업인 등과 업무 협약 체결...수산물품단지 확대·어업인들과 상생 협력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확장 계획...폴무원 등 11개 기관, 김 양식 기술 상용화 지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13일 새만금개발청 4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폴무원, 어업인단체, 대학, 관련 기관 등과 새만금 글로벌 김 육상 양식 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 생산 및 육상 양식 기술개발’ 공모(해양수산부 주관) 지원 전략회의 이후, 어업인 대표자와의 간담회(2월)를 거쳐 추진됐다.

협약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폴무원,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시어촌계협의회, 전북자치도 김생산어민연합회,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3일 지자체·폴무원·어업인단체·대학·관련 기관들과 새만금 글로벌 김 육상 양식 사업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 국립 공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향후 김 육상 양식 기술 상용화에 따른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확장 계획, △ 김 양식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협력 방안,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력 사항 등이다.

참석한 어업인 대표들은 “세계 최초 김 육상 양식이 새만금에서 이뤄지길 바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 이후 상용화 과정에서 지역의 어업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의 지속적인 상생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서 펼쳐질 폴무원의 혁신적인 도전은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의 이상적인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모 선정까지 지자체, 폴무원, 어업인단체, 연구기관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농촌 왕진버스’ 의료지원 협약

원광대학교 치과병원과...농촌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구석 방문해 고령 취약계층의 농업 원광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강경화)과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메가젠홀에서 농촌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치과, 구강검사, 검안, 물리치료,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치과, 구강검사, 검안, 물리치료,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석 방문해 고령 취약계층의 농업 인 활력증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 어르신들의 구강관리 검사 및 예방수칙교육을 통해 의료 비 지출 감소, 치아관리법을 통한 식생활 개선, 건강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가 돼 추진하는 농촌 주민 실의사업으로, 작년 대비 지자체는 사업계획 반영으로 본예산이 편성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민생안정 대책 일환에 발맞춰 농협중앙회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국 단위 260회 추진을 목표로 개소 당 최대 300여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운영 편성이 됐다. 이에 전북농협은 관내 시군지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준비 및 활발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지역사회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전주시, ‘관광창업 아카데미’로 청년 관광창업 활성화 불 밝혀

관광창업경진대회 통해 선발된 최종 5팀 실증비 지원, 관광상품 상용화 적극적 지원 나서

전주시가 다채로운 문화콘텐츠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 분야 창업을 꿈꾸고 도전하는 창업자들 양성에 나섰다.

시는 ‘전주시 관광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관광창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시 관광창업아카데미’는 관광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창업 실무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양성한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경진대회 및 실증을 통해 지역특화 여행패키지를 개발,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나아가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는 이 교육에는 당초 수료 목표인 20명보다 세배 많은 신청자가 몰려 관광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교육은 각 단계별로 △창업 기초 △POC 창업 심화 △투자유치 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관광 분야의 특화 창업을 위해 관광 창업 성공사례와 관광 상품 기획,

마케팅, 자금운용, 관광 트렌드 등에 대한 집중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시는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과 23일 이들 동안 무박 2일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교육 기간 중 발굴한 관광창업(여행패키지 등)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5팀에게는 팀당 최대 1000만 원의 실증비가 차등 지원되며, 시는 5개월간에 전주시역을 대상으로 걸쳐 상용화 이전 지역특화 여행상품을 실증해 시장성을 검증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하나로마트 실무담당자 대상 농식품바우처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 시행 앞서 서비스 실무 담당자 이해 높여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4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하나로마트 실무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의 핵심내용과 사전 점검사항 등을 다루어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수혜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균

형 있는 영양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잡곡류 등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임신부, 영유아, 조종중 학생이 있는 가구로 지원 금액은 4인 가족 기준 매월 10만원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바우처는 카드에 지원 금액이 충전되는 형태이며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정확한 사용처는 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농촌진흥청,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 갖고 운영 본격화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지난 13일 오후,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지원단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춧대, 갯대, 나무 잔가지 등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태워 없애는 관행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순 후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파쇄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영농 부산물 불태우기 및 논·밭두렁 태우기 자체, 영농 부산물 자원화 활용, 파쇄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관내한 농촌진흥청장, 이마라 산림청 차장, 홍성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등은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와 임대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어 파쇄지원단과 합동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에 참

여, 파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영농 부산물 파쇄 협업 활동은 ‘2024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에 따라 전국 139개소(138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인 11~12월, 1~5월에 품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과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 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 부산물 소각 자체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16만 6천 톤)보다 약 21% 늘어난 20만 1,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발생 산물은 279건(132ha)으로 최근 10년 대비 49%가 줄었고, 면적은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산물 원인은 소각(19%), 입산자 실화(18%), 담뱃배 실화(13%), 연소재 취급 부주의(12%) 순이었다. 이마라 산림청 차장은 “기후변화로 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한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 확대로 소각 산물 발생 저감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캄보디아 송금 수수료 면제 이벤트 실시

4월 30일까지...‘한캄·한뎀 이벤트’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캄보디아로의 실시간 송금서비스 수수료를 면제 해 주는 ‘한캄·한뎀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갈수록 밀집해지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 교류 증대 및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행하며 이 기간 동안 송금수수료와 전신료가 전액 면제 된다.

전북은행은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인수 후 지난 2017년부터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실시간 외화 송금이 가능하며, 2023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SWIFT 방식 송금과 달리 캄보디아 현지의 고객 계좌로 실시간 자금체계가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빠르고 저렴한 송금서비스의 장점 때문에 현지 신고 및 투자목적 고객들로부터 다수의 서비스 문의가 오고 있다”며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호응이 높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쓱뱅크’ 또는 전북은행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농진청, 동물 실험 대체 오가노이드 기술 연구확대 협력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 있는 오가노이드 연구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레드-그린바이오 연구소(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 부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 중인 협업 과제 현황을 듣고, 동물오가노이드 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 수요 발굴 및 과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강 부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동물복지 분야에서 동물오가노이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며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 역량을 결합하면 성과 도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오가노이드 기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동물 재생 치료제 연구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내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전북특별자치도,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3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반려동물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오가노이드 연구를 ‘우리 농업(UP) 미래로 프로젝트’에 포함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농생명공학 솔루션 민관협의체’를 올해 1월 24일 출범시켰다.

/최준호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AI와 함께 미래 준비하겠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 AI 기반 대학 운영 프로젝트 추진·온라인 강의 확대·미래 첨단 사업 분야 집중 육성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교육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AI와 바이오, 반도체·양자컴퓨터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연구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취임 2주년을 앞둔 지난 14일 오전 10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전북대의 비전을 발표했다.

양 총장은 “지난 2년을 하루 평균 300Km를 달리면서 전북대의 혁신을 이끌었다”라고 표현하며 취임 이후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2년 동안 전북대 역사상 처음으로 8천 억 원이 넘는 대형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유치한 것과 52억 원의 발전기금 유치, 재학생 만족도 평가 6년 연속 1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

회 성공적 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운영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20억 원이 투입되어 구축 중인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양 총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정보화 분야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사와 행정, 포털, 모바일 서비스 등 대학 운영 전반에 AI를 도입해 미래지향적인 대학으로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하는 대학 교육의 방식도 적극 수용해 온라인 강의를 대폭 늘리는 교육의 특성화도 제시했다. 양 총장은 “오프라인이라는 낡은 우물에서 물을 떠먹는 시대는 지났다”며 “지난해

말 162개였던 온라인 강좌 수를 2027년 500개까지 늘려 세계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전북대 강의를 듣고 학위를 따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JBNU 실현을 위해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인 AI와 바이오, 반도체·양자컴퓨터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2028년까지 유학생 5천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세계 유수의 국가에 5개 이상의 JBNU 국제센터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학생들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능력을 겸비한 융합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주전공을 포함한 융합전공을 이수하여 복수학위를 취득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올해 본격화되는 RISE 체계와 글로벌대학30 사업에서 지역의 인문 사회학, 문화예술과 산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취임 당시 전북대를 학생들이 꼭 다니고 싶은 대학, 지역과 생생하는 플래그십대학, 외국인이 먼저 찾는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없이 된 2년이였다”라며 “대학교육의 혁신,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국동계체전, 전북 학생 선수 176명 참가

스키 알바인 김찬 선수·스키 보드 정서영 선수 금메달 예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학생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총 7개 종목에 17개 시·도에서 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선수단은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루지 등 6개 종목에 176명이 참가한다.

스키 알바인 종목에 참가하는 설 천중 김찬 선수와 스키 보드 종목에 참가하는 무주군 정서영 선수가 금메달을 노린다.

전북교육청은 동계체육대회 참가 학생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용품·장비비, 대회출진비 등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훈련을 해온 만큼 26년 연속 종합 4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대회가 도전과 성취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모든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 멋진 경기를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신학기 대비 학교 안전점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통학 안전관리 ▲미세먼지 대응/공기정화장치 관리 ▲학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학교 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기숙사 화재 예방 및 대응 관리 ▲산업안전관리(시설, 경비, 청소, 급식실, 통학 보조) 등이 다.

/최성민 기자



‘교무업무 지원교사’ 3월 첫 시행… 교원 업무경감 기대

초등학교 50곳 교무업무 지원교사 배치… 주당 10~12시간 수업·빈도·강도·난도 높은 교무업무 지원 역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3월 새학기부터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무업무 지원교사’란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추가로 배치되는 교사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주당 10~12시간의 수업과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교무업

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업무는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교사를 1명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의 지원 업무는 해당교사가 지정한다.

학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무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민주적 합의와 자발적 참여기회 부여

를 위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결과 2025학년도 총 50개의 초등학교에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하게 됐다.

학교업무 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교무업무가 지원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경감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교육청은 일반화 가능한 업무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면·서면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사업무 경감의 실질적인 경감 방안을 모색하여 선생님들이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5년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120명 모집

내달 7일까지 남원국악예술고·전주예술중학교 접수·전액 무료 진행… “예술 인재 양성·도내 예술계 기여 기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이 2025년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120명을 모집한다.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은 도내 예술분야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초3~중3)을 대상으로 예술전문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질의 예술분야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4일, 진흥원과 교육 주관기관(남원국악예술고, 전주예술중)이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도 학생모집에 나섰다.

예술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은 남원국악예술고와 전주예술중으로 해당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되며,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현웅 원장은 “예술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진로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재를 발굴하여 장차 도내 예술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군산대, 전기차 클러스터 인력양성 성과보고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 지역맞춤형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이경규)은 지난 13일 군산대 공과대학 합동강의실에서 ‘4차년도 사업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군산지역 전기차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기업 맞춤형 R&D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역 내전기 자동차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군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석·박사급 전기차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성과 발표회는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교수 및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공유했다. 또한, 사업단 참여 교수로 다방면에 기여한 김현철 교수의 은퇴 기념 자동차 산업 관련 강연이 진행됐다.

/최성민 기자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1. 보일러 외출로
들어놓기



2.보일러 틀 때
가습기 함께
사용하기



3.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하기



4. 난방 밸브
확인하기



5. 온수 사용후 냉수
쪽으로 돌리기

군산시, 제1차 군산시 관광진흥위원회 개최

군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1차 군산시 관광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민 부시장)가 지난 14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군산시 관광진흥위원회는 군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주요 관광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난 12월에 선정된 관광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등 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2025 머물고 싶은 다채로운 매력옴 관광도시'를 목표로 ▲K-관광섬 브랜드 개발 및 홍보용역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 용역 보고에 따른 자문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K-관광섬 브랜드 개발 및 홍보용역' 관련해서는 K-관광섬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산책길 코스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월명산 달빛마루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엔 효율적인 동선계획과 매력있는 관광 상품 발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최대한 세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희망2025' 캠페인 목표 초과 달성

정읍시민들이 따뜻한 기부로 희망을 밝혔다. '희망2025 행복나눔캠페인'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나눔 문화 확산의 모범을 보였다.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희망2025 행복나눔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부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희망2024 행복나눔캠페인'에서는 목표액 달성률 202%를 기록하며 기부문화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목표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8억 700여만원이 모이며 134%의 초과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학수 시장은 "나눔을 실천해 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기부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정인 기자

'만 원으로 도심 속 자연 체험' 익산시, 주말 가족농장 모집

익산시가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내달 6일까지 '주말 가족농장'에 참여할 282가구를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주말 가족농장'은 시민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제공되는 농장 면적은 가구당 16.5~33㎡ 내외이며, 연간 입차료는 1~2만 원으로 저렴하게 운영된다.

분양은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이번 모집에서는 신규 전입 가구,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한해 '무추첨 특별분양'이 진행된다.

주말 가족농장은 익산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전자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859-497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삼양식품, “함께 갑시다”

‘익산공장 이전 계획 없다’… 직원 채용 확대·공장 주변 시설 개선 진행 예정

익산시가 55년째 익산에서 굳건하게 활동 중인 삼양식품㈜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지난 14일 모현동 삼양라면 익산공장을 방문해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배석희 경제관광국장과 양경진 건설국장이 참석했다. 시는 삼양식품㈜ 임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삼양식품 측은 익산공장 시설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공장 이전은 없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삼양식품 공장 주변에 공원과 공동주택이 조성되면서 ▲공장-공원 간 경계 담 설치 ▲친환경 보일러 교체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의 환경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견고한 제품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 확대를 위해 직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

1963년 국내 최초의 라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1971년 익산에 본격적



익산시는 지난 14일 모현동 삼양라면 익산공장을 방문했다.

인 생산 시설을 갖추고 꾸준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삼양식품의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

배석희 경제관광국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삼양이 익산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 창업주인 전중윤 명예

회장이 연고도 없는 익산에 공장을 세운 이유는 다름 아닌 의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6.25 전쟁 피난 당시 전 명예회장의 끼니를 익산 사람들이 보살펴줬던 것을 잊지 않고, 라면 열풍이 불던 1970년 익산에 공장을 세워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도운 것이다. 이어 55년이 지난 지금도 삼양 익산 공장은 지역을 위한 다양한 나눔에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본격 추진

339가구 총 3억 5000만 원 투입… “주거환경 개선에 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정읍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339가구에 총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그린리모델링(24가구, 1억 2000만원)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보수(300가구, 1억 200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12가구, 4500만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3가구, 2000만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보수가 어려웠던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부엌 개량, 창틀 교체, 보일러 교체, 화장실 보수, 전기시설 점검·보수를 비롯해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설치까지 지원해 생활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꾸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노후 주택을 점검·개보수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기준 완화·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보일러 지원 확대

군산시가 난방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과 지역 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억6천1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0대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관내 주택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당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군산시 관내 저소득층·취약계층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목재연료, 연탄, 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종반은 LPG 보일러를 지원하는 등 작년 대비 지원 대상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진한

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www.ecosq.or.kr/boile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군산시 기후환경과 기후대응계(063-454-3393)로 연락하면 된다.

김현숙 기후환경과장은 “깨끗하고 맑은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다이로움’ 정책, 동네서점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4만여 명 이용… 동네서점 이용률 43.7% 인터넷서점 추월

익산시의 '도서구입 다이로움(多e움) 정책지원금' 사업이 시민의 책 구매를 인터넷에서 동네서점 중심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익산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 시민의 43.7%가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한다고 응답해, 인터넷서점 이용률(43.3%)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에 밀려 위축됐던 지역서점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서점업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최찬희 익산서점연합회장은 “다이로

움 정책 덕분에 인터넷서점으로 빠져나가던 고객들이 다시 지역 서점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매출도 평균 20% 이상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9월부터 '도서구입 다이로움 정책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익산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을 이용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기본 인센티브 10%와 정책지원금 10%가 지급된다.

여기에 서점 자체 할인을 더하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터넷서점보다 경쟁력이 높아진다. 실

제 지난해만 해도 4만 2,398명의 시민이 해당 정책을 이용했으며, 지원금 규모는 1억 9,500만 원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동네서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이로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회조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익산시 내 1,005개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면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농업인 최대 3억 원 용자 지원

대출금리 시 3%·농업인 2.5% 부담… 지원 기간 최대 8년

익산시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시설과 장비, 농기계 구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원에 농업과 동진강추현, 익산산림조합 등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농가당 최대 3억 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8년이며, 청년 농업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경종·원에 가공·가축·특용작물·화훼 등 농·림·축산업 전반에 걸쳐 시설과 장비·농기계 구입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한다. 다만, 주택·농지·자동차 구입이나 비료·농약·유류 등 소모성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5.5%로 설정됐다. 이중 시가 3%를 지원하고 농업인이 2.5%를 부담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는 지난 12일부터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다양한 질의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오명제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시기적절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 확대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송기순 부위원장은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대하여 사후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빈집 활용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고경윤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것과 장애인에 위한 체육교실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강조했다. 이도형 의원은 도로변 가로수가 곳곳에 고사된 것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필요함

을 강조하였고, 보호수와 어울리는 쉼터 조성을 제안했다.

이상길 의원은 아양산 목조 전광대,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정상철 의원은 한국가요촌 달화에 고백 이전 조성 등의 색다른 콘텐츠 사업이 필요하며, 무성서원·동학 등의 관광지 연계 스탬프투어 사업도 강조했다.

최재기 의원은 구절초축제 방문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수종 개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계절 관광지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서항경 의원은 화장실은 그 지역의 얼굴이라며 전통시장 상권의 화장실을 정비하고, 공원화장실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장애인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 사업 지속 추진

군산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운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2023년 이후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 군산'으로의 위상을 높였다. 관련 예산 역시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9천 6백여만 원과 시비를 더한 총사업비 1억 9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주요 사업은 ▲거점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동아리 '응기종기' 배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성과공유회'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발달장애인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아트플라보 운영사업 ▲소통의 기회 제공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등으로, 이 사업들은 2024년도 추진 결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 제도 확대

'정읍이웃 복지동행' 시스템·AI 안부확인 서비스 등 도입

정읍시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며 촘촘한 지역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확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커지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활업종 종사자 1419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위기가구 제보 채널인 '정읍이웃 복지동행'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가구를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전·단수·보험료 제납 등

4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3191세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공공·민간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950세대를 발굴해 이 중 위험군으로 판정된 339세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중장년 225세대에는 AI 안부확인 서비스와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시는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시민들과 소통나서

27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19개 읍면동 찾아 공감대 형성

정성주 김제시장이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19개 읍면동을 찾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을 진행하며 시민과 소통한다.

지난 14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이번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2025년의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은 17일 만경읍, 청하면부터 시작해 27일

백구면, 용지면까지 하루 2개~3개 읍면동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통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310건으로 이중 완료 144건, 추진 중 68건, 미해결 36건, 불가 62건이다. 또, 각 읍면동 방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시민과 직접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경

로당 등에 현장 방문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시민들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경청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이라며, “민선8기 3주년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의 행복과 김제시의 대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전력을 시민과 함께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심덕섭 군수 모바일 주민등록증 1호 발급…“많은 군민 편리함 누리길”

고창군이 지난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17세 이상 군민은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계적 확대 기간을 거쳐 내달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청 시 ‘QR 코드’ 또는 ‘IC주민등록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 발급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회용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신청 즉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IC주민등록증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IC칩(5000원),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5000원) 등 총 1만원의 발급 비용이 든다.



고창군이 지난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17세 이상 군민은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군민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IC칩 발급 비용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아침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에 방문해 ‘고창군 제1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또한, 민원응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민원과 많은 업무량으로 애쓰는 민원팀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민원종합평가 우수 등급 달성’ 등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신분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지리적표시 명품 고창수박’ 첫 정식

첫 명품수박, 5월 하순 수확 대 판매 예정

고창군이 지난 14일 오후 아산면 남산마을의 이만수 농가 포장에 올해 첫 모종 정식(定植)을 진행해 ‘2025년 지리적표시 명품 고창수박’ 재배 시작을 알렸다.

고창수박은 2~3월까지 1기작 수박 모종 정식이 진행되고, 지난 14일 정식된 수박은 5월 하순쯤 수확돼 첫 번째로 지리적표시 마크를 단 명품수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앞서 고창수박은 지난해 9월 20일

지리적표시제 116호로 등록됐다.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농산물의 지리적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수박재배농가와 고창군이 진행해 오던 오랜 숙원사업의 결과다.

올해 재배돼 수확되는 수박부터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의회, ‘농업용 난방 면세유 대상 확대 촉구’ 등 채택

제286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헌)가 지난 14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38개 부서서를 대상으로 시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들을 심의하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임시회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의원들은 올해 시정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청취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NH농협 부안군지부-농주모, 한마음 워크숍 실시

NH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상완)와 (사)농가주부모임 부안군연합회(회장 장금순)는 지난 13일 변산면 일원에서 농가주부모임 읍면별 회장,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농가주부모임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가주부모임 활성화 토론, 쌀소비 촉진 홍보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일정으로 진행해 더 뜻깊은 행사가 됐다.

조상완 지부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하게 봉사활동을 펼치는 농가주부모임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안군농협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새만금지평선소식에 ‘보이스아이’ 도입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김제시민 및 출향인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자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새만금지평선소식에 ‘보이스아이’를 2월호부터 도입한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보이스아이는 문자를 읽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시정소식지의 지면에 실린 문장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지원 바코드가 있다. 보이스아이 코드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어플을 무료 설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구독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소식지 매 페이지 우측 상단에 삽입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활자가 음성으로 출

력된다. 보이스아이는 단순히 화면을 출력하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글씨 크기 조절 버튼으로 글씨를 확대 또는 축소해 가독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고대비 기능 버튼으로 글씨와 배경색 대비가 가능해 개인별로 더 선명한 글씨를 선택해 볼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보이스아이 도입은 시각장애인은 물론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에게 시정 소식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동계·하계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 접수

고창군이 동계·하계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신청 기한은 동계작물 3월31일까지, 하계작물 5월31일까지로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사업과 함께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이며 지급단가는 작기와 품목에 따라 다르다.

동계작물은 ha당 50만 원, 하계작물은 두류·가루쌀 ha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 ha당 1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ha당 500만 원이다.

또한 동계에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이어서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략작물 직불금이 쌀 수급과 쌀값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해당되는 농가들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오감놀이 프로그램’ 큰 호응

부안군은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시간제보육실에서 영유아를 위한 오감놀이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참여한 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 중 5점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실은 가정 양육 부모가 일정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로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체력 중심의 놀이 활동을 제공해 영유아의 감각 발달을 돕고 있다.

특히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오감놀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며 창의력과 애착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연자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시간제보육실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공간이 아니라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체험형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민관합동 ‘함께 만드는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3일 일상회 복지원금 사용 관련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김산택지 일원에서 ‘민관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시지부(지부장 이승은)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경제진흥과 직원, 소비자연합 회원 등을 포함한 약 20여명이 참여해 상가 상인들과 시민들 대상으로 ‘함께 만드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일시적 물가상승이 우려되기에, 물가안정 리플릿을 배부하며 요즘 과다인상 자체, 내 지역 상품 소비 실천 등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착한 물가안정을 위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시는 주기적인 물가안정 캠페인과 물가조사 실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540-3982) 및 불법상가제 신고센터(소비자상담센터 1372) 운영 등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물가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내 지역 착한 물가를 위해 나부터 실천하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착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437억 투입 ‘농촌협약 대상·연계사업’ 가속화

고창군이 농촌공간을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농촌협약 대상·연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촌지역 곳곳에서 2028년까지 총사업비 437억 원을 투입한 농촌협약 14개소 대상사업과 이와 연계된 30개소 연계사업이 진행중이다.

먼저, 오는 4월에는 성내면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된다. 성내면 복합문화체육센터는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카페 ▲빨래방 ▲공유주방 ▲동아리실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 전달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봄에는 신림면에 주민복지시설과 면사무소 기능이 복합된 ‘주민행복센터’도 개관할 예정이다. 거점지역의 중심 기능 향상과 접근성이 개선된 공간에서 문화·복지·행정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외에도, 2028년까지 ▲고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안면 기초생활가점 조성사업 ▲성송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단순한 시설만을 건립하는 사업이 아니라, 난개발이 난무했던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지역소멸을 고려한 관내 지역간의 통합·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조선대와 치매예방 협력 맞손

순창군-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업무협약 체결...치매 조기 진단·관리 강화
첨단 예측 기술 활용...고위험군 선별부터 정밀 검사까지 전 과정 지원

순창군이 조선대학교·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손잡고 지역사회 치매 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을 본격화한다.

군은 지난 14일 조선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와 치매국책연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연구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 검사 ▲정밀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 연계 ▲치매 조기 예측과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순창군과 조선대는 치매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치매 조기 예측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1차 검사(치매 인지 선별 검사, 혈액 검사, 유전자 변이 검사)를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주민들은 2차 정밀 검사(MRI, 아밀로이드-PET, 마이크로바이옴 검



순창군이 조선대·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손잡고 지역사회 치매 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을 본격화한다.

사)와 전문의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게 된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 치매조기진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왔다”며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첨단 치매 예측 기술을 활용해 순창군민들이 보

다 정밀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조선대와의 협업을 통해 선진화된 치매 진단 기술을 도입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최대 3천만 원 보장

시민 자동 가입, 개인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농기계 사고 등 총 22개 항목 보장

남원시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원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질병·교통사고 등 지급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

대 3천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4, 6, 8주 진단 시 20, 40, 70만 원 등으로, 총 22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 받을 수 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고 후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전담 콜센

터(02-785-9611)로 직접 문의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 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955) 문의 및 남원시 누리집 및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희망자 모집

빈집 활용 주거문화공간으로...건물주 최대 2,500만원 지원 취약계층·예술인 주민 공간 조성

순창군이 빈집을 재생해 주거 취약계층과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주거시설로 개선하거나 문화·주민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건물주는 동당 최대 2,500만 원의 시설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크게 주거시설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조성형으로 나뉜다. 주거시설개선형은 빈집을 수선·정비한 후 4년 동안 무상 임대하며, 셰어하우스로 제공될 경우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 가능하다.

임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귀농·귀촌인, 청년, 농촌유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가가 비영리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4년 동안 무상 임대된다. 주민공간조성형은 빈집을 절제된 후 주차장, 텃밭, 쉼터 등의 공동공간으로 조성해 3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물주는 오는 2월 21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청 농촌활력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수요 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 빈집이 선정되며, 건물주와 순창군이 협약을 체결한 뒤 임주자를 모집해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활력과(063-650-177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 어르신 배식 봉사 참여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서...따뜻한 마음 전달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14일,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접 배식 봉사를 진행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는 이달 10일 경로식당의 정식 운영이 시작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경로식당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시장은 이번 배식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어르신이 시장의 직접적인 배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에서 보내주는 따뜻한 관심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한,

어르신들은 경로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가 있다고 칭찬하며, 지역사회에서의 따뜻한 관심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날 배식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생활에 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봉사를 통해 남원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지난 13일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진행됐으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단은 다음 참여기관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지목했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든 이희수 이사장은 “전 세대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 직원들도 캠페인에 참여해 ‘완주에서 키우는 희망,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 ‘할기잔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완주’ 메시지를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유소년야구대회 안전개최 만전 기해...식품위생 점검 강화

순창군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는 제10회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1일까지 군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발생 증가에 대비해 위생 관리와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대회 기간 동안 순창을 찾는 2,500여 명의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식중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조리식품 재사용 금지 ▲조리기구 위생 관리 ▲식품 취급 기준 준수 등이 포함되며,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위생 관리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초·중생 중국어캠프 수료식...일상 회화·문화 체험

(제)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지난 15일 삼례문화예술촌 실내공연장에서 완주군 초·중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캠프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완주군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중국어캠프는 초·중학생 3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원어민 강사로부터 수준 높은 중국어 교육을 받았다.

일상회화를 듣고, 상황별로 직접 말하는 활동 등을 통해 중국어 실력을 향상하고, 중국 전통의상, 태극권, 중국음식, 중국 수묵화 그리기, 중국 전통춤과 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중국문화도 체험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중국어캠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 협동 및 소통하는 법을 익히고, 완주군에 대한 애함심까지 키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아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질환 추가기준 완화’ 확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025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지원 가능한 대상질환은 기존 1,272개 질환에서 66개를 추가해 1,338개로 확대됐고, 소득·재산 기준은 당초 기준 중위소득 성인 120%미만, 소아 130%미만에서 연령 구분없이 중위소득 140%미만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 지원 항목은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 치료에 드는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그 외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도 기준 적합 시 지원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고산도서관, ‘나이 불문 평어 소통’ 독서클럽 운영

완주군 군립고산도서관이 독서동아리 ‘한밤의 야자독서클럽’ 회원을 오늘부터 모집한다.

독서클럽에는 이라야 동화작가가 이끄미로 활동하며 글 작법과 독서에 관해 배움을 나눈다.

한밤의 야자독서클럽은 참여 규칙이 있다. 야자독서클럽의 목표 중 하나인 친구맺기를 위해 이끄미와 참여자 모두 존댓말이 아닌 서로 평어를 사용한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야 하며 비속어 사용이나 ‘야, 너’의 사용은 금지된다. 사적인 금품증대 스스로가 말하

기 전에 물어보기 금지다. 초등학교와 80대 어르신이 같이 참여하더라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평어를 사용한다.

모임은 오는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격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총13회차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전화나 방문에 신청할 수 있다.

김은희 도서관사업소장은 “도서관이 세대 간의 갈등을 원활히 풀어내고, 서로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어울림도서관, 유아초등 영어독서 프로그램 진행

남원어울림도서관은 상반기 과정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하반기 과정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영어 독서 프로그램 ‘English 스토리 타임’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영어 강사와 함께 주별 새로운 영어책 읽기를 진행하며, 줄거리 공유하기, 영어 노래 배우기, 영어 게임 운영 등 영어와 관련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 내용을 포함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진행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유아(2019년~2020년) 및 초등(2017년~2018년)으

로 각 반당 6명씩 참여 가능하며, 상·하반기 매주 금요일 15시 40분과 16시 45분에 남원어울림도서관 2층 영어놀이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남원시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은 오는 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신청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공공도서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남원어울림도서관으로 문의(063-620-7788)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완주군이 지난 13일 완주군 가족센터 2층(가족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 가족(고용주)이 주 대상으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 설명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인권침해 예방 및 준수사항 순으로 진행됐고 사례 위주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은 농가에

서 별도의 숙소 마련이 필요 없고, 이따 물이 낮으며, 가족이 곁에 있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어 농촌 일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난해 104명까지 확대 운영해 왔다.

올해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확대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군청에서 진행되던 교육을 고용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추진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을 계절근로자 고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하이슬, 330만원 상당 자사 화장품 전달...지역사회 온기 전달

㈜하이슬(대표 박이경)은 지난 14일 (재)남원 시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에 총 330만원 상당의 자사 화장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미스트·바디워시·바디로션으로 구성된 '바른 유자케어 세트'로,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다동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고립 장년)에게 전달됐다.

이번 기부는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슬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이슬은 남원 지리산 하브투구에 위치한 친환경 화장품·의약품 제조 기업으로, 지리산 천연물을 직접 생산한 원료로 화장품을 개발·생산·유통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딤포디아'와 '이너벨라'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내 1만여 개의 에스데틱샵과 수출 협력하는 등 남원의 화장품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주기린로타리클럽, '베데스다의 집'에 공기청정기 기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기린로타리클럽(회장 한을수)이 지난 13일 완주군 운주면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시설 '베데스다의 집'에 공기청정기(2대) 물품을 기탁했다.

'베데스다의 집'에 17년째 나눔을 해오고 있는 전주기린로타리클럽은 지난해 운주면 수재민들에게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 위문품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홍성희 운주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로타리클럽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서,치매노인가족 인계한홍운섭씨감사장

승객으로 탄 손님, 치매노인 같아 112 신고...가족 인계에 결정적 역할

익산경찰서(서장 고영완)는 지난 14일 승객으로 탄 손님이 치매노인 같다는 112 신고로 신속하게 가족에게 인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인택시 기사 홍운섭 씨(74)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도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7분 경 익산시 영등동 반석교회 앞에서 80대 할아버지를 내려 드렸는데, 딸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 요금도 받지 않았는데 치매노인처럼 보여 112에 신고했다.



익산경찰서는 손님이 치매노인 같다는 신고로 신속하게 가족에게 인계하는데 역할을 한 개인택시 기사 홍운섭 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NH농협 임실군지부, 2258만원 고향사랑 기부

지역사회 발전 및 농업·농산물 증진 위해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임실군은 지난 13일 NH농협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재문)가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농산물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2258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심 민 군수와 이재문 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NH농협 임실군지부 직원들이 연초부터 지역 발전을 염원하며 십시일반 뜻을 모아 참여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번 기부금은 임실군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문화·예술·보건 증진, 임실군민

복지증진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 민 군수는"이재문 지부장님과 NH농협 임실군지부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은 지난 13일 NH농협 임실군지부가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농산물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2258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화건설, 무주군에 라면 370박스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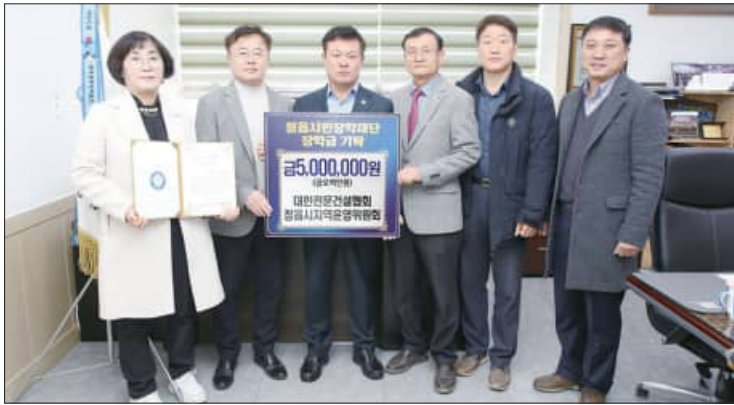
무주군 무주읍 소재 유화건설에서 지난 14일 무주군에 라면 370박스(592만 원 상당)를 기탁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이날 전달된 라면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중 사장은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싶었다"라

며 "라면이 한 끼 식사를 넘어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나눔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화건설은 김정중 사장이 대표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철물, 소방, 건축, 생활용품 등을 판매업체로 지난해에도 장학금 3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정읍시, 지역 인재 위한 장학금 기부 행렬

정읍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장학금 기부가 이어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읍시지역 운영위원회(회장 신현철)는 지난 13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북면에 위치한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체 유한회사 세일의 유입분 대표도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유 대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사회를 위해 힘쓰는 와중에도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장수군 산림조합, 천천면에 성금 100만원 전달

장수군 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13일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식은 천천면 하늘내 행복나눔터 2층에서 진행됐으며 이현원 천천면장, 최민식 민간위원장 그리고 산림조합 직원 3명이 참석했다.

한상대 조합장은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다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현원 면장은 "천천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군산시 우리어린이집, 월명동에 성금 451,850원 기탁

군산시 월명동에 위치한 우리어린이집의 원아들과 교사들이 이웃돕기 성금 451,850원을 월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지난 14일 전달했다.

이번 성금기탁은 원아 20명 및 교사들이 함께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로 모금한 것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돈이다.

우리어린이집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모금된 성금은 월명동 특화사업 및 맞춤형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호 월명동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우리어린이집 원생과 선생님 일동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순창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순창소방서는 전라북도 대회에 참가할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의 신속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만 10세 이상의 학생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팀을 참가자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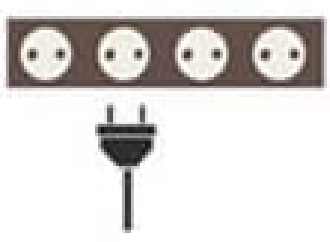
경연은 8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짧은 연극 형태로 표현하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회는 4월 4일(금) 전라북도청 3층 공연장에서 열리며, 총 15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학생·청소년부 7팀과 대학·일반부 8팀이 참여하며,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여한다. 학생·청소년부 최우수팀과 대학·일반부 최우수팀 1팀씩은 전국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되며, 이 전국대회는 5월에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다.

/순창=박지현 기자



생활속 화재 예방 주의

멀티탭 전원이 아닌 플러그 뽑기!



난방기기를 장시간 켜놓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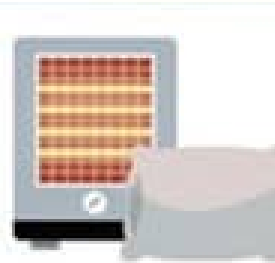
쓰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주세요

가스레인지 사용 시 조심 또 조심!



사용 전엔 환기를, 사용 후에는 밸브까지 잠그는 습관

난방기기 옆 가연물은 치우기!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난로 주변에 닿지 않도록 조심!

〈一事一言〉



입만 열면 거짓말...윤석열, 차라리 그 입 다물라(3)

송요훈
언론인

대선후보로서 해서는 안 될 말 인데도 묻고 따지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티끌만한 빌미만 발견해도 태산처럼 부풀려 잘근잘근 씹기 좋아하는 언론이 윤석열에게 참 관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대선후보 윤석열은 당선 인사에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하고, 오냐 오냐 하니 할애비 수염 뽕고 상투 잡아 혼돈다고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랬습니다. 후보 시절의 못된 버릇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전했으니까요. 거짓말을 해도 언론이 비판하지 않으니 거짓말 면죄부를 받았다고 오만했는지 거짓말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든-날리면’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 윤석열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금 행사에 가서 ‘48초 정상회담’을 하고 그 대가로 1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윤석열의 개인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입니다. 알현인지 정상회담인지 아리송한 면담을 하고 나 오면서 윤석열은 ‘바이든 쪽팔려서’라는, 전 국민에게 듣기 평가를 강요한 비속어 실언을 했습니다.

니다. 그럼에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국민에게 사슴을 말이라 하는 지록위마의 거짓을 강요했고, 실언을 최초로 보도한 MBC에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감정적인 보복을 했습니다. 기자가 보복을 당하는데 대다수 언론은 침묵으로 권력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 버릇은 점점 고악해졌습니다. 거짓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 거짓이 들끓나면 새로운 거짓을 창조하여 어제의 거짓을 덮으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말에선 겸손함이나 진지함이나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윤석열이 실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김건희 다올백을 예로 들어 볼까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하면 될 일을 모른 척하는 위장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함정 취재의 피해자라는 억지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서 그랬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종류를 바꿔가며 국민에게 환각제를 투입했지만 먹혀들지 않자 결국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를 했지만, 휘하의 친윤 검찰은 비난의 화살로 맞아 고슴도치가 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발부했습니다.

거짓말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윤석열의 습성은 12·3 계엄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피를 토하

는 심정으로 계엄령을 발동한다더니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과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아스팔트 극우에 매달려 연명하는 비루함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려고 계엄령을 발동했다더니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바꾸고 그제 막히지 않으니 다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였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저 살자고 태연하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저 살자고 공수처와 경찰, 법원과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광종군 전 특전사령관에 회유나 공작이니 하는 몸쓸 프레임 씌우고, 평화로운 계엄이니 계몽령이니 하는 말을 태연하게 입에 올리고, 비상계엄을 발동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억지를 부리고... 나라 꼴이 어찌 되든 저 살자고 거짓말을 멈추지 않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들과 국회당의 뻔뻔함과 비루함에 구토가 날 지경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말을 바꾸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저런 한심한 사람이 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니 하는 자괴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윤석열은 저 살자는 계엄령 발동으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망신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수십 조원을 넘어 숫자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오래도록 그 비용을 할부로 갚아야 합니다. 언론이 대선후보를 검증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검증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은 언론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이익을 위해 언론이기를 포기한, 겉은 언론이지만 속은 특정 집단의 선전도구인 무늬만 언론에도 흑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의 무리와 한패가 되어 국민을 속이고 흘리는 언론, 그들이 나라 망치는 주범입니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지도자의 품격 -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

대한민국이 내란사태로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며 국가를 혼돈에 빠뜨린 순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뛰어난 감각과 신속한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 있는 실행력을 바탕으로 이를 저지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계엄이 발표되자마자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고 국민들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며 시민들을 결집하게 만든 그의 대응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퇴행하는 것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사태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지도자의 자질과 통찰력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지도자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다. 지도자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그들의 통찰력과 정책적 판단이 국민의 삶을 좌우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지도자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을 안심시키고 미래를 내다보며 정확한 결정을 내린 인물들이었다. 링컨은 남북전쟁 중에도 흔들림 없이 노예 해방을 추진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끌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반면 윤석열은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계엄을 선포해 국가를 혼돈에 빠뜨린 후 그 책임을 군 장성 등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면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지도자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려 국민을 향해 탄압을 시도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의 행태는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다. 이런 사람이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침착한 태도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며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 국가 운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과 공감 능력이다. 통찰력은 단순히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대표는 계엄을 예견하고 대비했으며 실제 상황이 발생하자 즉각 대응했다. 또한 지도자는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

윤석열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행보를 돌아보면 그는 국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 역사는 위대한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가려낸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지도자의 진정한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대한민국은 이번 내란사태를 통해 어떤 지도자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지도자의 자질과 품격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열전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2000년 11월 17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군산시 설림3길 49, 1332-1

▲오늘의시

풍금 / 류근

배 끓고 집에 올 때 애야, 이리 오너라	아니예요 아녀요 배 불러요 아무리 내뺨어도 다 모른 척	이 노래 들어보렴
살구꽃 그늘 아래 나를 숨기며 하루 굶은 도시락 먹여주시던 우리 선생님	꽃이 피었구나 이 노래 들어보렴	창가 풍금을 켜며 괜찮다 아가, 괜찮다 불러주시던 선생님 생각나네 그 풍금 생각나네
시인 약력 : 1966년 문경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자랐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후 단 18년 만인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 김광석에 의해 불렀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히 순정’, ‘상처적 체질’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678-4271 인주지사 010-8640-6855 팔복지사 010-3015-4791 송전지사 010-5242-3694	군산지국 010-8641-7942 남원지국 010-2285-3987 익산지국 010-9560-3075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읍지국 010-2800-2934	무주지국 010-6411-0835 임실지국 010-8642-6502 진안지국 010-2433-1721 장수지국 010-8626-6049 순창지국 010-5312-7293
부안지국 010-7247-3947 고창지국 010-2258-3734 완주지국 010-3672-030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달콤한 인생 3막 순창시, 아미딸기체험농장

붉은빛과 맛깔스러운 향으로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유혹을 선사하는 딸기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작물이다.

고대 로마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딸기는 중세 유럽까지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사용되며 만병통치약으로 불려왔다. 작가 베르나르 폰트넬은 자신의 장수 비결이 딸기라 말했으며, 그는 백수를 누렸다.

딸기 매력은 맛, 영양, 비주얼, 조화로움 등이 있다. 맛은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과즙으로 맛있다. 톡톡 튀는 상큼함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추운 겨울부터 제철을 맞아 볼까지 더욱 달콤하다.

먹기 적당한 크기에 한입 베어 물면 새콤달콤한 맛과 입안 가득 채우는 과즙미로 먹는 이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인지 우리 국민의 딸기 사랑은 남다르다.



임하수(46), 곽경하(46) 부부

코로나가 선물한 귀농 도전, 6차산업으로 피워내는 미래

“전직 포스코 직원이자 여행사 대표였던 임하수 씨의 귀농 스토리”



새콤달콤한 매력으로 순창 아미딸기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임하수(46), 곽경하(46) 부부.

순창군 금과면 아미산 자락에 위치한 아미딸기체험농장은 지난 2021년 순창군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해 농사를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자가 시설로 딸기 농장과 체험장 시설 증축에 한창이다.

달콤한 인생 2막, 코로나가 선물한 딸기농장의 꿈

“해의 하늘을 누비던 날개를 접고, 이제는 딸기밭에서 새로운 꿈을 피웁니다”라며 포스코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임하수 씨는 해의 여행을 다니며 느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행 커뮤니티를 시작했다.

현직 사정에 밝은 그의 조언과 도움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이는 그를 여행사 창업으로 이끌었다.

“여행사는 잘 굴러갔어요. 하지만 세상은 예측할 수 없더군요. 코로나19가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여행사를 접어야 했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우연히 접한 귀농 정보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교육을 받으면서 농사에 대한 희망을 얻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임하수 씨 부부는 ‘현실농부’와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농사 노하우를 배웠고, 순창군 ‘경영실습임대농장’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잡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귀농을 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

“여행사를 할 때는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면, 이제는 달콤한 딸기와 함께 행복한 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시선을 돌린 그들의 선택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귀농의 이야기가 되었다.

순창에서 피워낸 딸기농장의 가능성 “순창이 딸기 주산지인 아니지만, 오히려 그 점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하수 부부가 딸기 작목을 선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이 있었다. 순창은 전통적인 딸기 산지는 아니었지만, 스마트팜을 활용한 시설딸기 육성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었다. 최신 기술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도 큰 매력이었죠. 체험농장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창은 광주 대도시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체험객 유치에 유리했다. 이는 여행사를 운영했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이 발휘된 선택이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딸기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작물이에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은 초보 농부인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순창군의 적극적인 스마트팜 육성 정책은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딸기는 수요가 많고 안정적인 작물이예요. 체험농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300명의 체험객이 찾아왔어요 체험객이 찾는 이유에 대해 임 대표는 “스마트 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이곳을 활용하기 위해 체험농장 쪽으로 과감하게 시도를 했다”라며, “한때 300명의 가족이 농장을 찾아와 체험을 하셨

어요. “올해는 체험 시기를 앞당겨 2화방 수확 즈음으로 체험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농부의 지혜로 일군 달콤한 성공

“SNS는 우리 농장의 또 다른 밭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만남을 수확했죠.”

아미딸기체험농장의 임하수 대표는 여행사 운영 시절 익힌 SNS 마케팅 노하우를 농장 운영에 접목시켰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농장의 일상과 체험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방문객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여행사를 할 때 배운 온라인 소통의 기술이 농사일에도 꽤 쓸모가 있더군요. 농장의 사계절을 카메라에 담아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여행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쌓은 고객 응대 경험은 체험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농장의 일상적인 모습부터 딸기의 성장 과정, 수확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꾸준히 SNS에 담아냈다.

“작물 재배 기술과 더불어 우리 농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방문객들은 단순히 딸기를 따러 오시는 게 아니라, SNS에서 보고 기대했던 경험을 찾아오시는

거니까요.”

달콤한 열매를 키우듯, 미래를 가꾸는 농장

“딸기밭에서 피어나는 꿈은 사계절 내내 달콤한 결실을 맺을 거예요.”

임하수 대표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빛났다. 단순한 딸기 재배를 넘어, 가공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계절 내내 활기 넘치는 농장을 꿈꾸고 있다.

“순창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하는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 농장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광주와 전주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임 대표 부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딸기잼과 과자 같은 가공품 개발은 물론, 계절마다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다.

“농장이 단순한 수확의 공간을 넘어, 추억을 담아가는 특별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성껏 키운 딸기처럼, 방문객들의 마음속에도 달콤한 기억이 자리잡으면 해요.”

곽경하 씨와 함께 가꾸는 농장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이다. 달콤한 딸기향이 가득한 이곳에서, 6차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 “우리의 꿈이, 순창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작은 딸기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돌아오는 길, 숨어 있는 보물을 찾듯 순창 아미산 봉우리가 둥그런 모양이다. 딸기가 친구되어 농부의 소득이 엉글어 저 봉우리처럼 쌓여지기를.

/이상훈 기자

